



국민 눈높이로 다가온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오는 17일이면 출범 100일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탈권위를 실천하며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대통령도 보통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1년 가까이 중단됐던 미·중·일·러 등 정상외교도 재가동했다. 사진은 국회서 취임선서와 1호 업무지시를 하는 모습을 비롯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과의 만남과 5·18 민주화 운동 행사에서 유족 위로, 이낙연 국무총리와 첫 국무회의의 입장과 여야 4당 대표와 오찬, 남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유 기전 토리 입양,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서 한-중-일 회담,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기업인 호프 미팅 등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군공항 이전 등 19건 국정과제 포함 정부 의지와 예산 반영이 가장 중요

광주·전남 주요 현안 사업 어떻게

광주, 차·에너지·문화 관련 기업유치 긍정적 전남, SOC 국토균형발전 차원 국가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광주·전남지역 일부 해묵은 현안들이 국정과제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향후 국비 예산 반영 등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현안사업 8건씩 그리고 광주·전남 공통사업인 상생공약으로는 ▲5·18 정신의 현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밸리 국가에너지산업 거점화(한전공대) ▲국립심혈관 설립 등 3건이 국정과제 포함됐다.

'호남 예산 확대' 다시는 없어야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일부 지역 현안사업들이 국정과제 등에 포함되거나 국가사업으로 확정됐지만, '호남 예산 확대'로 인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모두 지지부진했다.

역대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은 정부의 '빚값 예산' 지원에 그치면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제자리 걸음을 걸어왔다.

◇동서 내륙철도 등 예산 반영이 관건=국정과제에 채택된 광주시 사업들은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이전부지에 스마트시티 조성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 ▲광주형 일자리 선도 모델 창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국립

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4차 산업혁명 기술·인재 산업 생태계 조성 ▲원도심 재생 뉴딜정책 등도 반영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등 8건이다.

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정을

광주시는 친환경자동차와 에너지산업, 문화 등 3대 분야 현안사업들이 모두 반영되면서 정부의 지원 하에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향후 관련 기업유치 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광주~대구 동서 내륙철도 건설은 이번 국정과제에서 정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았고,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과 민주·인권 기념파크 및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은 이번 국정과제 선정에서 빠졌다.

광주시는 이들 사업이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연계돼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실국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가다듬고 있고, 조만간 보고회 등을 가질 계획이다.

이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예산 반영이 가장 중요하다.

동서 내륙철도의 경우 국정과제에서는 빠졌지만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내륙철도 건설도 사업 추진의 명분과 근거가 생겼다. 하지만 결국 6조3097억원에 달하는 총사업비의 정부 지원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3차국가철도망구축

계획 동서 내륙철도가 수정반영돼야 한다.

이낙연 총리 적극 나서야

◇이낙연 총리 발탁, 기회이자 위기=전남의 가장 큰 변화는 이낙연 전 전남지사의 국무총리 발탁이다. 이 총리는 전남에게는 기회이자 위기가 되고 있다. 이 총리의 역할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대거 확충 등 전남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회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등 중요한 시점에 도정의 수장 지리가 비면서 공직 기강이 느슨해져 호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목포~보성 간 남해안철도 언급 없어

전남 현안 사업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거 반영됐다.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 ▲목포에 해경 제2정비장 유치 및 수리조선 특화단지 조성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광양항 항만기반시설 확충 및 광양만권 첨단신소재산업 육성 ▲서남해권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산업 추진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등 8건이다.

그러나 지역민의 숙원 사업인 목포~보성 간 남해안철도 건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SOC 사업은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물적 투자보다는 일자리·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어 또 다시 전남지역 SOC 개선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주요 SOC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이 보는 문대통령 100일

"상식과 순리가 흐르는 안정된 나라 되찾아"

정병석 전남대학교 총장

나라가 혼란과 비정상에서 벗어나 안정과 정상을 되찾았다. 상식과 순리가 흐르는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각자의 몫을 누리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실감한다. 5·18 37주년 기념식에서 광주정신을 '민주·인권·정의'로 규정

하고 이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으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될 것이라 믿는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함께 행복한 세상, 우리의 아들 딸들이 당당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를 만들어주시리라 확신한다.



"광주 5·18 상처 보듬어주고 진상규명 노력"

차명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는 문재나 발표명령자 진상 규명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또 옛 도청 원형 복원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동안 5·18의 아픔을 가진 채 살아온 광주시민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려는 노

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것들이 신속히 이행되기를 바란다. 문 대통령이 5·18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정권은 발표 명령자를 밝힐 수 있는 적기로 본다. 또한 왜곡·편향 세력을 단죄하는 법도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대북정책 이제 보수 눈치 보지 말아야"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문 대통령은 그동안 독립유공자 처우문제를 비롯해 5·18 진상규명, 옛 도청 복원 등 역대 정권이 실망감을 줬던 부분들을 희망적으로 바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후속적인 조치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개혁은 전광석화처럼 이뤄져야

한다. 촛불심심이 가졌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 특히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에서 관해서는 어렵게 느껴진다. 현재까지는 미국이나 보수 우익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문화행정의 개혁·제도적인 개선 청사진 마련을"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인 분권·자율·협치·지역문화 발전 등을 통한 발전과 박근혜 정부의 적폐였던 블랙리스트 청산을 위한 예술인 창작·복지 지원 확대 등의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하며 기대한다.

'100대 국정과제'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정상화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이끌어갈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 기반이 될 한국문화기술연구원(CTI) 설립 약속, 7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효 연장 및 목표기간 연장 등이 빠졌다. 총론적인 방향에 걸맞은 문화행정의 개혁, 제도적인 개선의 청사진을 확인하지 못해 기대 반, 우려 반이다.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

본 자연장은 아름기초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